

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
	배포일자	2021년 3월 23일(화) 총 2매	
담당 부서	보건환경연구원	담당 자 • 해양조사과장 곽완순 ☎440-5521 • 담 당 자 김경열 ☎440-5525	
사 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
인천시, 항·포구 수질환경조사 추진 계획

- 소래포구, 연안부두 등 해수, 퇴적물 오염 집중 조사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소래포구, 연안부두 등 10개 항·포구를 선정하여 해수 및 퇴적물의 수질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족한 해양환경조사 자료 확보 등을 위해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인천의 항·포구를 선정하여 오염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.
- 주요 조사항목은 화학적산소요구량, 총유기탄소 등의 유기물뿐만 아니라 비소, 수은 등의 중금속과 잔류성유기물질인 PAHs (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, 다환방향족탄화수소)이다.
- 특히, PAHs는 선박의 기름 유출이나 배기가스에 의해 바다로 유입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환경유해인자이다. 이번 조사를 통해 PAHs의 농도를 측정하고 구성비를 이용하여 오염발생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아울러,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질평가지수(WQI)와 부영양화 정화지수(CIET)를 이용한 수질 평가 및 퇴적물 오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.
- 수질평가지수는 해수 중의 부영양화 관련 항목의 평가를 통해 산정하는 대표적인 해역별 수질등급기준이고, 부영양화 정화지수는 해양 퇴적물의 유기물에 의한 오염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다.
-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점별 평가결과의 비교를 통해 오염도 및 오염원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.
-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이번 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항·포구의 수질개선은 물론 더 나아가 항·포구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양친수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〈붙임〉 소래포구 시료채취 사진

